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5월 2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한국이민사 박물관	담당 자	• 한국이민사박물관장 박진영 ☎440-4701 • 담당자 전민숙 ☎440-4708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2021 유아 단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5월 31일부터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아 단체 교육프로그램인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유아들에게 어려운 이민의 역사를 하와이 초기 이민자인 함해나 할머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개발했다.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었던 함해나 할머니의 이민의 여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학습의 효과를 높였으며,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가 포함되어있는 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시행이 어려운 면대면 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민사 박물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museum)에 이민 관련 각종 동영상 및 상설전시 자료 등을 게시해 한국이민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였다.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되며, 상반기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하반기 접수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진영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코로나 19로 등원과 외출이 어려워진 유아들이 한국이민사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 고

코로나 19 극복[함해나 할머니 이야기] 포스터

